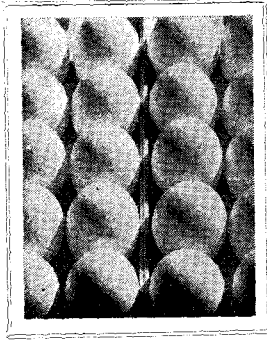


병아리를 잘 기르는



비결은?

민 덕 기

〈信成농장 九里부화장 대표〉

1. 병아리 구입과 선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모르면서 아는척하고 알면서 실행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

어린 병아리를 죽이지 않고 균일하게 잘 기르느냐? 못기르느냐? 하는것은 그 닭의 일생동안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즉 육추율이 나쁘면 육성율도 떨어지게되고 성계가 된 후에도 성계의 폐사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산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많은 경험과 현실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번의 부주의와 아차하는 실수가 발육이나 육추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을 교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게되는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가진 병아리라도 육성방법과 기술이 부족하면 발육이 나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치 못하게 되는 것이니 다소 경비가 든다 하더라도 무리한 육추나 소홀한 관리를 하지 않도록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어린 병아리는 환경에 대하여 극히 예민하고 저항력이 약하며 섭취하는 사료의 질에 대하여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항상 세심한 주의와 관찰을 하여야하며 한번의 실수로 경영상 큰 손실을 받게되는 것이다.

능력이 우수하고 혈통이 확실하며 건강한 병아리를 구입하는 일이다.

이러한 병아리의 선택방법은

- (1) 신용있는 부화장을 찾아가야 되며
 - (2) 종계의 혈통과 사양관리 및 환경 위생상태를 세심히 조사검토하고
 - (3) 부화장의 위생관리가 철저하며
 - (4) 종란의 취급과정과 보관상태가 철저히 잘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소독을 엄격히 하고 있어야 한다.
 - (5) 병아리는 가격에 앞서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구입할 것
- 값싼 병아리만 찾을 것이 아니라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능력이 우수하고 건강하면 10원이나 20원 비싼 것이 오히려 경제제라고 할 수 있다.
- (6) 공동(共同)구입으로 많은 수량을 구입함으로써 품질과 가격뿐만이 아니라 기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도 있다.
 - (7) 병아리를 가져올 때 미리 가서 먼저 발생된 것을 가져 오도록 할 것.
 - (8) 개체별로 보아서 건강하고 충실한 병아리를 선택할 것. 약한 것은 별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9) 병아리의 체중은 균일한 것을 선택하도록 할것.

(10) 육제용이라도 자용을 구별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다.

(11) 난황의 소화정도와 운반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구입할 것

이상 여러가지로 열거하였으나 우선 질이 좋은 병아리를 구입하는 것이 선결이다.

2. 육추요령

아무리 질이 좋고 건강한 병아리라도 육추기술과 요령이 잘못되었으면 소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다소 약하더라도 육추기술과 요령이 좋으면 회복도 될 수 있는 것이다.

(1) 설탕물이나 비타민제 수용액을 먹일 것

병아리가 발생된지 오래되었던가 운반시간이 오래된 것, 특히 외국에서 가져온 병아리 같은것은 물론이지만 국내에서 구입된 것이라도 처음에 물을 먹일 때 미온수에다 0.1%정도의 설탕물을 먹이던가 비타민제 수용액을 먹이면 병아리의 건강회복이 빨라지고 활기가 좋아진다. 가능한 첫날 또는 처음 한번이라도 설탕물이나 비타민제 수용액을 먹이는 것은 권장하는 바이다.

(2) 체중별, 자용별, 발생시간별로 구분하여 입추수용할 것

병아리의 체중은 난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또한 발생시간(난황의 소화정도) 차이에 따라 체중이 다르다. 그러므로 체중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구분하여 입추(入雛)함으로써 균일한 발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강한 것과 약한 것을 구분하여 항상 분리 수용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 항상 치여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발육이 나빠지나 이와같이 구분하면 각각 균일한 발육이 된다

난용종에서는 으레히 자용감별이 되고 있으나 육용종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외국에서는 육용종도 당연히 감

별하여 구분 육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용의 강약차이도 있겠지만 경영상 안수의 출하적령(出荷適令)의 차이와 상품화에 있는 것이다.

작은 부화장에서 많은 마리수의 병아리를 구입하였을 때 처음에 나온것과 후에 발생된 것과 시간차이는 거의 24시간이 넘고있다. 그러므로 첫모이 시간의 차이는 물론 강약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병아리의 상태를 보아서 발생이 균일치 못하였을 때에는 구별하여 입추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3) 환경조절을 철저히 잘하여 줄 것.

(i) 항상 온도는 적온을 유지할 것

어린 병아리는 털의 보온력이 극히 없으며 피부가 얇아서 저항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추우면 사료의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약하여지고 발육이 나쁘며 또한 너무 더워도 생리적 장애와 과로, 식욕의 감퇴로 발육이 나빠진다.

그러니 환경 온도에 각별히 주의를 할 것이며 특히 배터리 육추에서 온도차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가끔적 고온에서 육추를 하는것보다는 약간 낮은 편에서 육추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병아리의 활동상태와 외모를 잘 관찰하여 적온을 유지토록 할 것.

(ii) 일정한 습도를 유지할 것

처음 병아리를 입추하고서는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바닥에 뿌리든가 난로에 물을 끓여 실내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늦은 가을부터 겨울과 이른 봄까지 급온(給溫)을 많이 할때 각별히 주의할 것.

1~2 주후 부터는 온도를 낮추면서 건조도가 적어지며, 또한 물을 흘리게 되고 배분(排糞)의 량이 많아 점차 습도가 증가된다. 이때부터는 되도록 건조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iii) 환기가 철저히 잘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기라고 할 수 있다. 환기가 나쁘면 생리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발육이 나뻐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생 오염율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보온에만 힘쓴 나머지 환기가 불량하여 성장이 저조하고 사료효율이 떨어지며 육추

울을 나쁘게하는 보이지 않는 큰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철저한 환기가 되도록 특별한 주의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4) 안정(安靜)된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

병아리가 생활하는데 불안감을 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놀래면 서로 물리어 밟히고 다치게 되며 여기에서 강약이 생기게 되며 또한 불안감의 조성은 많은 비타민의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고 양분의 손실이 많다.

특히 배터리에서 바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장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된다.

그리고 실내가 지나치게 밝으면 병아리는 민감하여 잘 놀라게된다. 그러니 광선이 많이 들어와 밝지 않도록 할 것.

(5) 첫모이를 먹은 것과 먹지않은 것과는 구분하여 관리를 할 것.

첫모이를 주고 밤에 개체별로 모이주머니(소낭)를 만져보면 먹은 것은 볼록하고 먹지않은 것은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다. 먹지않은 것은 난황의 소화가 되지 않았던지 또는 무엇인가 이상이 있는 병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첫모이를 잘 먹은 건강한 놈과 같이 수용하면 먹지않은 것은 계속 약추가 된다. 그러므로 첫날밤 또는 2~3일간 이와같이 개체별로 조사 구분하여 관리를하면 균일하게 발육이 되며 육추율을 향상시키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니 다소 힘이든다 하더라도 일일히 개체별로 만져보아 구분하여 관리를 할 것.

(6) 첫모이는 특별히 배합하여 먹일 것.

일반적으로 초생추사료를 그대로 먹이는 것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소화가 용이하고 단백질함량이 낮으며 그대신 비타민제의 함량과 항생제의 함량을 높인 특수 초이사료를 만들어 먹이므로써 병아리의 부담이 적고 발육이 좋아진다.

(7) 첫모이는 물에 개어서 부드러운 사료로 만들어 급여할 것.

첫모이부터 마른 사료를 먹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과히 권장할 바가 못된다. 그것은 처음에

는 물도 잘 먹지못하고 마른 사료를 먹으면 먹기가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소화가 늦어진다.

그러니 물에 개어 부드럽게 하여 2~3일간만 먹고 그 다음부터는 마른 사료를 자유 채식토록 하는 것이 좋다.

(8) 밀사(密飼)는 가장 발육을 해친다.

기준 수용수수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넣었을 경우 더 수용한 것만큼 증체가 덜되며 강약이 생기고 폐사가 많아진다. 그러니 숫적인 육식을 버리고 절대로 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밀사는 서로 밟히고, 제대로 모이나 물을 먹지 못하며 또한 환기가 나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균일한 발육이 되지 않을 뿐더러 폐사가 많이 생기는 큰 원인이 된다.

(9) 물그릇과 모이그릇을 여유있게 넣어줄 것.

수용수수가 적다 하더라도 물그릇이나 모이그릇이 모자라면 밀사가 된 것과 같다. 서로 모이를 먹으려고 밟고 싸우는 바람에 약추가 많이 나오게 마련이다.

다소 밀사가 되더라도 물그릇과 모이그릇에 여유가 있게 하여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면 오히려 넓은 장소에서 모이그릇이나 물그릇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병아리가 크면서 모이그릇이나 물그릇의 수가 부족되지 않도록 항상 여유있게 준비할 것.

(10) 기구의 손상이나 과대 과소가 되지 않는 것을 사용할 것.

육추기구가 거칠던가 손상이 되어 이로 인하여 병아리가 다치던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물그릇이 너무 커서 병아리가 물그릇에 빠지면 털에 물이 묻어 추위할 뿐아니라 약해지므로 죽게된다.

특히 어릴때 이로 인한 실수가 많으니 물그릇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크면서 모이그릇이나 물그릇의 크기를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 병아리가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11) 모이를 줄때 밀집(密集)하지 않도록 할 것

모이나 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병아리는 배가 고프던 부르던간에 모여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특히 회수(回數)급여, 즉 제한급식을 할 때는 더욱 심한 현상을 보게되는데 이 때 모여들면서 서로 밟히고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강한 병아리가 약하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때 밀집(密集)을 방지하고 분산시키기 위하여 사료를 한주먹 뿌려 주던가 또는 여러사람이 들어가 분산하여 급사를 하여야 한다.

흔히 모이를 줄때 물리고 밀집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무관심한데 이것은 하루속히 시정하도록 할 것.

그리고 개중에는 소리를 치고 발길로 차는 자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놀래어 도망가다 가 다치게 되며 항상 사람에게 친밀감이 없어져 사람만 보면 놀래는 후천적인 습관이 붙게된다. 이것은 나쁜 폐단이 되며 능력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12)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프로 표시하여 일목 요연하게 할 것

그래프용지에다 그 품종의 표준곡선을 그려놓고 육추율, 사료섭취량, 성장곡선등 모든 성적과 예방접종계획표, 점등시간표등을 같이 기입하여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질을 가져오지 않으며 성적을 검토하기 용이하다. 그러니 반드시 종합성적표와 계획표를 작성하여 검토 실시할 것.

(13) 관리자가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항상 세심한 관찰과 연구심을 가지고 애정있는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병아리와 좋은 사료라도 관리자가 소홀히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흔히 양계업자는 육추가 잘 되지 않을때 병아리의 탓 또는 사료의 탓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관리자의 부주의와 환경의 불비됨을 많이 볼 수 있으니 우선 자신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고 싶다. 그러니 이론과 기

술을 잘 알고 연구개발하도록 할 것.

(14) 사료는 항상 일관성 있게 먹이도록 하고 갑자기 변경시키지 말 것

단미사료의 종류나 배합비를 자주 바꾸지말고 계획성있고 일관성있게 먹이도록하여야 한다. 사료의 가격에 앞서 품질에 더욱 주의하고 신경을 써서 선택 급여하도록 할 것

(15) 병아리에 심한 스트레스를 줄때에는 항생제와 비타민제를 더 첨가 급여하는 것이 좋다.

즉 예방접종을 할 때나, 병아리를 이동할때 또는 환경이 갑자기 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 이러한 항생제나 종합 비타민제를 증가 급여함으로써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항상 지나친 과량의 급여는 삼가하고 항상 균형을 이룬 급여를 할 것

(16) 육추사에 먼지가 많고 환기가 나쁠때 공중 살포소독을 실시할 것

실내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던가 공기가 탁할때 소독약을 타서 공중에서 살포소독을 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상 효과가 크다. 그러니 환기가 나쁜 육추사 특히 배터리의 육추 또는 많은 마리수를 대군 사육할 때는 1일에 1~2회 정도 공중소독을 실시할 것.

실내에는 먼지가 나지 않도록 또는 먼지가 보이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상 여러가지로 열거하여 과거 몇년간 경험하고 느낀 점을 기탄없이 들었으니 어느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항상 주의를 하여 육추의 성공을 이루어야 하겠다. 육추의 성공은 양계 경영에 성공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모르면 배우고, 알면 서로 깨우쳐 개선해 나가며 실천하는 양계업자가 되어 건설한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빌어마지 않는 바이다. □□

정확한 기록유지는 양계 성공의 첫 걸음.